



보도자료

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 2026. 08. 08. (토요일)

글로벌 식량 안보와 영양 불평등 - 유통비용 부담과 콜드체인 부재가 초래한 세계 식량 격차 문제 -

유엔이 발표한 '2026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현황' 보고서에 따르면, 2025년 기준 전 세계 26억 9,0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32.7%에 달했다. 즉 전 세계 인구 3명 중 1명은 과일, 채소, 단백질 등을 균형 있게 포함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. 이는 높은 식품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가공 및 유통비용 부담이 더해지면서 국가와 지역 간 영양 격차가 더욱 심화된 결과로 분석된다.



사진: 더 나은 미래(2026.07.23)

특히 지역별 격차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. 아프리카는 인구의 66.6%가 건강한 식단을 감당하지 못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, 이는 아시아(28.9%)나 중남미·카리브해(25.7%)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. 전세계적으로는 건강한 식단을 감당하지 못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, 아프리카는 오히려 그 비율이 증가해 식량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보고서는 건강한 식단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유통비용을 지목했다.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의 70~75%는 생산 이후 단계에서 발생하며, 이 가운데 중간 유통 과정이 최종 가격의 최대 40%를 차지했다. 또한 도로와 저장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신선 식품의 손실이 증가하면서 과일·채소와 동물성 식품 가격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.

콜드체인(저온 유통망) 부족 역시 식량 격차를 확대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. 현재 전 세계에서 냉장이 필요한 식품 가운데 실제로 냉장 유통되는 물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. 이러한 콜드체인 공백으로 인해 2017년 한 해에만 약 5억 2,600만 t의 식품이 손실된 것으로 추산된다.

농업 지원 정책 편중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. 과일·채소와 동물성 식품은 건강한 식단 비용의 약 70%를 차지하지만, 세계 농업 생산자 지원은 곡물과 설탕, 유제품, 쇠고기, 유지작물에 집중되어 있다. 보고서는 저렴한 주식 작물의 생산비만 더 낮출 경우 일반 식단과 건강한 식단 간의 상대적 가격 차이가 오히려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. 이에 따라 과일·채소·콩류의 생산성과 공급을 높이고 콜드체인과 도로·저장시설 등 생산 이후 단계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.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의 콜드체인 부족, 중남미·카리브해의 운송망, 아시아의 수확 후 보관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제4회 HLMUN PRESS팀	팀장	총괄	최다인
	팀원	기사 작성 및 번역	송윤진, 장서연
한림대학교 총학생회 hallym40th_chanlan@naver.com			
한림대학교 제4회 모의유엔협회 hallymmun@gmail.com			

